

#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용

찾아가는 사역들

논산성결교회 / 예배인교회 / 홍산성결교회 / 인천송의교회

탐방 / 기도하는삶 그룹

주은혜교회

TEE 미션

필리핀 신명근 선교사

사역 안내

설교세미나 / 가정세미나 / 2024년 일정



찾아가는 사역들

## 한국교회, 그 현장 속으로 KTEE가 찾아갑니다!

KTEE는 끊임없이 익스텐션 센터교회를 찾아가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KTEE와 더 깊이 소통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TEE 수료식, 컨설팅, 설명회, 현장 세미나 등으로 현장의 실질적 필요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 » 설명회 / 논산성결교회
- » 수료식 / 위례예배인교회
- » 현장 세미나 / 홍산성결교회
- » 컨설팅 / 인천송의감리교회

# 1. 설명회 / 논산성결교회

지난 1월 13일 논산성결교회(담임: 민경휘목사)에 방문해서 교회 리더들 및 TEE 예비 그룹원들과 함께 하루 TEE 설명회를 가졌다.

논산성결교회는 온 교회가 TEE를 통해 새롭게 제자훈련 시스템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요일 하루 TEE를 소개하고, 실제 모임을 경험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두 시간정도 TEE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를 한 후에, 약 80여명의 신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된 풍요로운삶 위

크샵을 진행했다. 논산교회는 이미 모든 사역자가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인도자 가이드를 통해 사역자들이 준비했고, 참석하는 인원들도 미리 교재를 통해 예습을 한 후에 소그룹 모임을 원할하게 할 수 있었다. 모임을 마친 후에는 실제 경험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이 과정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에 꼭 필요한 도구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



## 2. 수료식 / 위례예배인교회

지난 2월 3일 토요일 위례에 소재한 예배인교회(담임: 이성재목사)에서 TEE 수료식이 열렸다. 이 날 수료식에는 KTEE 한국코디네이터인 최용목사가 방문해, 교회 성도들에게 TEE를 소개하고, 수료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례예배인교회는 지난 1월 첫주 담임목사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TEE가 시작된 새로운 KTEE 가족교회이다. 하지만 이 교회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작년부터 동역을 시작한 박지은전도사가 이 교회 TEE 훈련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은전도사는 필리핀 선교지와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TEE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예배인교회 안에서 더 활발하게 TEE를 통해 섬기고 있다.



“이제 크루즈에서 내려 전함으로 옮겨 타라. 그만하면 많이 쉬었다!”

담임목사의 이 선언과 함께 TEE가 공식적인 훈련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교회 안에 성경연구원(W.B.S: Worshipin Bible School)을 개설하여 세퍼드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훈련을 시작했다.

주일에 진행되는 소그룹 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온라인 소그룹을 여러 반 개설해서 진행해 왔다.

처음에는 TEE의 방식이 낯설어서 어색하고 어려워했지만, 점차 적응을 해서 이제는 활발하게 토론과 삶의 간증이 나뉘지는 풍요로운 소그룹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그룹들을 준비하고 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시작한 위례 예배인교회가 TEE를 만나 더욱 견고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소그룹 훈련이 왕성해져가고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한다.



### 3. 지역 세미나 / 홍산성결교회

홍산성결교회(담임: 김병준목사)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센터교회이다. 충남지역 네트워크 대표를 담당하면서 많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준목사와 KTEE는 함께 충남지역을 위한 현장세미나를 진행했다. 2월 26-27일 양일간 진행된 TEE 세미나를 통해 가까운 지역교회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찾아가는 TEE 세미나는 양육 훈련 및 관련 세미나에 익숙지 않은 교회들이 용기를 내어 참석하고,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는 특별한 사역이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목회 현장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적합한 교재를 찾기 어려웠다가 이번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목회자들의 나눔이 많은 세미나였다. 빠른 고령화와 점점 다변화된 문화적 환경 속에서 TEE는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누었다.



## 4. 컨설팅 / 인천송의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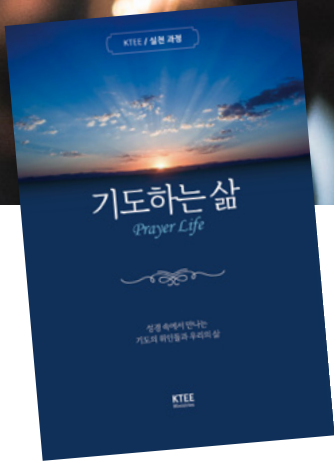
지난 2월 29일 인천 송의감리교회(담임: 이선목목사)를 방문해 교회가 TEE를 적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의논하고,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서울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열린 TEE 지도자 세미나에 송의감리교회 담임인 이선목목사와 부사역자 7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바로 교회 양육 훈련사역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KTEE에 함께 의논하기를 요청했다.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로 TEE를 시작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송의교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경대학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TEE와 접목할 수 있어서 빠르고 긍정적인 논의가 되었다. 먼저 세미나에 참석한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초반부터 소그룹을 시작하고, 나아가 신자들을 리더로 세우는 방향에 대해 자세히 의논했다. 송의교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양육 소그룹을 기대해 본다.



◀ 가운데 이선목 목사





# PRAYER LIFE

탐방/ 주은혜교회 기도하는삶 그룹

## '기도하는삶'으로 세워지는 기도공동체 기도에 대한 지식과 삶의 태도가 변하는 놀라운 경험



최호년목사 주은혜교회

KTEE에서 발행하여 공급되고 있는 '기도하는삶'은 펜데믹이 준 뜻밖의 반가운 선물이다. 성경 속 기도의 영웅들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기본적인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과 방향, 그리고 제목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과정이다. 최근에 이 교재를 통해 많은 기도 소그룹이 시작되고 있고, 그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회를 꿈꾸며 7년 전에 LA 북동쪽에 위치한 라카나다(La Canada)에 세워진 주은혜교회가 '기도하는 삶' 과정을 마쳤다. 담임 최호년목사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깊이 품은 첫째 소원은 '제자 삼는 교회'였다. 뿌리 없는, 생명 없는 겨의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나무로 자라는 제자 삼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



를 위한 다른 한 가지 소원은 ‘소그룹 말씀 훈련’이었다. 일단 주중에는 소그룹에, 주일에는 주일예배와 예배 후 주일 말씀을 토대로한 소그룹 모임과 교제에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간구했다.

교회 초기에는 TEE 세퍼드라이프를 중심으로 리더십 제자 양육에 집중했다.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참된 의미와 더불어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의 소중함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다.

3년차 정도 되었을 때 팬데믹이라는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지켰다. 그동안 세퍼드라이프를 통한 제자 양육이 구심점이 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주로 커피브레이크 비대면 성경공부에 집중했다. 말씀의 끈은 놓치 않았

다. 힘들수록 더 모일 수 있었고, 말씀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컸다.

현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커피나 TEE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커피브레이크나 TEE! 지난 학기에 커피브레이크로는 요한계시록, TEE로는 기도하는 삶의 소그룹 성경공부로 모였다. 감사한 것은, 주은혜교회 교우들의 60퍼센트 이상이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최목사로부터 ‘기도하는 삶’을 마친후 소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의 교재를 처음으로 받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This is it! 제가 찾고 있었던 말씀 교재였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교재는 팬데믹 동안 한순진목사님께서 집필하여 주셨



는데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조합이었으며 우선적으로 기도의 본질을 다루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시간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누는 성도님들은 진지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는 말씀 안에 치유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기도 밖에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방기도가 회복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고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절정은 마지막과인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기도문이었고, 그동안 수 없이 이 기도로 기도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후의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은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그룹의 열 두 제자에 집중된 것처럼 주은혜교회도 주중에는 계속해서 소그룹 말씀 양육과 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봄에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 류라현권사/ 간절함, 한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다

기도하는 삶의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도할 때의 모습은 여러가지지만 간절함으로, 한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는 것이 역시 기도의 진정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타로 마지막과에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할 때 ‘감당치 못할 긴 시험, 강한 시험은 없다’는 내용에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이번 기회에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렇

습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다” 고백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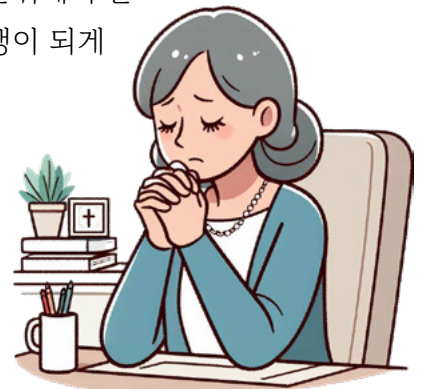
일생일대 거듭 태어남의 체험을 한 후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참 좋고 즐거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꿈쩍 못하게 되니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괴로움의 극치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경제도 바닥을 치면서 살기 힘들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았습니다. 정신줄 놓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 결심하고 마켓 주방일을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감당이 안되어 집에 오면 거의 실신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병원과 약을 달고 지내다 어떤 계기로 좀 덜 힘든 일터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날라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어진 수입이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대신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다” 고백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은혜 충만해서 교회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상황이, 환경이 막상 봉사를 못하게 되니 내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은혜교회 공동체 소속이 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그 어느 것보다 우선 순위에 두시는 목사님 덕분에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성경공부도 기도에 대해 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엔 힘들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소망으로 견딜 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2의 팬데믹이 와서 그 모든 것이 불 타 없어진다 해도 말씀과 기도는 남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 무엇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 조동현 장로/ 골방기도로 기도의 문이 열린다

올해 가을 ‘기도하는 삶’이란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1주일 후에 있었던 저희 순모임에서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기도와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성경공부를 했지만, 이번만큼 매일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던 공부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 늘 기도는 했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내뱉고는 주님의 답변은 별로 기대도, 기다리지도 않는 반쪽 기도였죠.

그런데 성경공부 가운데 특별히, “한결같이,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오랜만에 ‘골방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기도가 쉽게 나오질 않아 매일 ‘주의

기도’로 시작을 했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주님과의 1:1의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이른 아침 시간에 하는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바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체험하며 너무나 신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12과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대하여 오묘하신 주님의 계획과 사랑 앞에서 몸과 마음의 전율까지 느꼈습니다. 요즘 같은 기도의 묘미를 체험한 적이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매일 아침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과 새로운 신혼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맛을 다시 새롭게 맛보며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 TEE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 루손섬 북부 마운틴 프라빈스주 까따끌란  
신명근선교사(GVBC, 침례교 해외선교회 소속)

“익스텐션, TEE와 함께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모든 지역 교회마다 TEE 교육센터 세운다.



신명근선교사

### 들어가는 말

저는 2003년 3월에 기침 해외선교회 소속으로 필리핀 루손섬 북부 지역인 마운틴 프라빈스주 까따끌란 지역에 파송받아 교회개척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푸가오, 벵켓주, 일로코스, 라 유니온 주로 교회 개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팬데믹은 사역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전화위복의 기회였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사역했던 내용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사역의 내용, 사역비전들을 기도하면서 TEE 사역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 TEE 사역배경

3년의 펜데믹기간 가운데 2003년부터 해 오던 사역들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의 사역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마태복음 28:18-20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침례주고, 가르쳐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가르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교육에 대한 부담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운틴 프라빈스 주 까따끌란 지역인 포함된 발릭, 나토닌, 파라셀리스 지역에 사는 발랑아오 종족의 지역교회들의 교회교육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며 교육교재가 전문하고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필리핀 교회 사역자 가운데 80%는 성경학교,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아니한 사역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지 지역에서 신학교 후보생들을 후원하기가 벅차고 졸업후에 다시 고향 교회로 복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십 훈련과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훈련하여 다음 교회 목회 리더십을 양성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공무원도 있고, 학교 교사들도 있고, 군인,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



장 많은 직업군은 농사입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교인들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TEE 교재(커리큘럼)로 신학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2018년에 Global Vision Bible College(신학교)를 파라셀리스 지역에 세워서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신학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먼 곳에 위치한 교회에서는 올 수 없는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데믹 이후에 TEE에서 말하는 ‘by Extention’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TEE 교재와 함께 학교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TEE 교육센터를 세우자!”라는 모토와 함께 동기부여를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마다 하나 둘 TEE 그룹들을 만들면서 GVBC-TEE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GVBC-TEE 커리큘럼

Global Vision Bible College의 커리큘럼으로 TEE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EE 교재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The Life of Christ 1-6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Vision QT를 매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수 과목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 QT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님의 제자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그 이해



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독서 과제입니다. Christ in the Scriptur와 소요리문답 2권을 기본적인 독서과제를 TEE 과정을 하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독후감 발표, 그리고 독서모임이 교회별로 형성되어 진행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GVBC-TEE학생들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큰 카테고리의 과목 속에서 GVBC-TEE를 운영하면서 교회 리더십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GVBC-TEE 사역확장 및 어려운 점

처음에는 마운틴 프라빈스주 파라셀리스에서 시작되어서 파라셀리스 3개 그룹, 나토닌 1개 그룹, 이푸가오주 3개 그룹, 발릭 1개 그룹으로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TEE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이해의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목회자의 교회는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수용적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교인들이 TEE를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EE는 지역교회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교회 목회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 GVBC-TEE 퍼실리테이터 양성

TEE 사역지역이 확대되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의 시급성을 깨닫습니다. 현재 4명의 퍼실리테이터를 세웠지만 이들도 역시 보충교육,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성하여 지역교회 교육센터 중심으로 TEE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24년은 퍼실리테이터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TEE 퍼실리테이터 양성집중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재생산, 선교적 리더십, 선교적 교회

결국 TEE가 지속적인 영적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유능한 퍼실리테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TEE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선교입니다.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후보생들을 일으켜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교회가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선교를 지향하는 TEE가 좋습니다.

*TEE는 지도자의 재생산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교지의 필요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교회와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KTEE SCHEDULE

# 2024 사역 일정들

## TEE 세미나

- 4월 1-2일(월화) Webinar
  - 4월 29-30일(월화) Webinar
  - 5월 27-28일(월화) Webinar
  - 6월 24-25일(월화) Webinar
  - 8월 29-30일(목금) 대면세미나 / 지구촌교회(예정)
- >> 온라인 세미나는 미주지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ow to Preach 설교세미나

- 4월 25-26일(목금) 지구촌교회/서울

## 가정 성경공부 설명회

- 5월 2일(목) 지구촌교회/서울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E 방법으로 배우는 설교 전문 과정

# 하우투프리치 세미나

How to Preach

## 2024 SPRING

설교 훈련 교재 + 심화강의 + 실습 워크샵

4.25 ~ 26 / 2일간 (목~금)

오전 9:30 ~ 오후 5:40

서울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6 지구촌교회 사랑채플



홈페이지 신청 [www.ktee.org](http://www.ktee.org)

◀ 휴대폰 촬영으로 바로 신청

매주 설교 강단에 서는 **목회자**

설교를 다시 점검하고,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현지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선교사** 기초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설교 개발이 필요한

**다음세대 목회자**  
자신감있고 분명한 설교자로

이 웨비나는 훌륭한 교수인 '하우투프리치'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교재와 함께 전문 강사진들이 강의와 소그룹으로 돕습니다.

- 조봉희목사 (대표, 지구촌교회)
- 김일경목사 (해외 이사장)
- 한순진목사 (디렉터)
- 임흥일목사 (코디네이터, 미국)

- TEE의 방법으로 구성된 셀프 스터디 교재, '하우투프리치'
- 풍요롭고 현장감 있는 강의
- 실제적이고, 단계별로 구성된 소그룹 워크샵

**미리 교재를 받아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위 QR 링크를 통해 신청

등록 후 교재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예습필요 / PDF 제공하지 않음

\* 등록비 : 20만원 (국민은행 061701-04-056210 / 예금주 : KTEEmini스트리)

문의 : 02.334.3489 / ktee@ktee.org

"설교자인 당신을 기다립니다."

  
강사진

등록  
방법

교사/부모 훈련교재  
**내양을 먹이라**

가정과 결혼 훈련교재  
**그리스도인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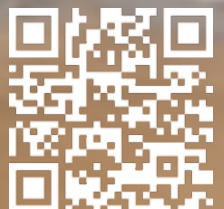
4주 가정 성경공부+설교  
**용기있는 삶**

# 가정 성경공부 설명회

5월 2일 목 / 서울 지구촌교회 9:30~4:30

홈페이지 및 우측 하단 QR로 신청 / 등록비 5만원 (점심, 교재 2권 포함)

KTEE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역을 응원합니다!



# 티 타임즈 TEE Times 제38호

찾아가는 사역들

논산성결교회 / 예배인교회 /  
홍산성결교회 / 인천송의교회

탐방 / 기도하는삶 그룹  
주은혜교회

TEE 미션  
필리핀 신명근 선교사

사역 안내  
설교세미나 / 가정세미나 / 2024년 일정

>> 저널 보기